

유정고 밴드
평범

갈수록 힘들어지는 현실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솔직한 내면을 드러내는 노래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유정고 밴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2000년 그들의 마지막이 되어버린 첫 앨범을 내놓은 유정고 밴드는 '바위처럼', '사람이 태어나' 등을 만든 작곡가 유인혁과 노래모임 <새벽>에서 활동했던 정운경 그리고 민중 락 밴드 <메이데이>에서 기타를 쳤던 고명원이 결성한 밴드였다. 이 셋의 성을 따서 <유정고 밴드>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개인적 사정으로 고명원이 탈퇴하고 천지인에서 베이스를 쳤던 박우진이 결합하며 팀의 구성은 달라졌지만 팀의 이름은 그대로 유정고 밴드였다.

1990년대 후반 민중가요 진영의 가장 큰 변화는 솔로가수들이 크게 늘어나며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유정고 밴드의 경우에는 팀이지만 개인적인 이야기기를 주로 담아내서 남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그들의 첫 앨범 <남상>을 보면 '이 길의 전부'처럼 낙관적인 진술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진술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유정고 밴드의 음악이 남달랐던 것은 개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어떤 대의명분과 당위를 기초로 희망과 낙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정고 밴드의 앨범 속에 담긴 화자는 혁명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20대 청년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좁아지고, 어릴 적 순진함을 잃어가고 있"는 30대 후반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그는 자신과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했으나, 결코 쉽게 잘 될 거야라는



식의 희망적인 전언을 내뱉지는 않았다.

대표적으로 '또 친구에게'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자는 "그저 이렇게 살아갈 뿐이라 말"하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혹시 알고 있거든 말을 하게"라고 반문한다. 그러면서 "저 빌딩에 불을 지를까 아니면 저 자동차 유릴 깨볼까"하며 낯두리를 늘어놓는다. 이러한 절망과 자포자기의 자아는 이전의 민중가요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자아상이었다.

절망의 노래 고통의 음악

정운경이 농담처럼 '절망의 노래 고통의 노래 - 유정고 밴드'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던 것처럼 그들은 절망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으며 그 해결책을 이전처럼 이념과 집단의 힘에서 찾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문제를 낯것 그대로 드러내는데 주력했던 그들의 태도는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라는 말 따위를 하며 나를 속이려 들지 않겠어"(제발)이라는 노랫말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써 약

20여년 가량 너무나 어렵게 민중음악을 해왔던 유인혁과 정윤경의 고민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더 이상 품 잡으며 자신을 속이는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한 노래를 하고 싶다는 그들의 소박한 바람은 “뒤축이 많이 닳”고 “색도 많이 바랜, 나와 함께 오랫동안 많이 다”닌 “나의 낡은 캐주얼화”를 노래한 ‘나의 낡은 캐주얼화’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나의 낡은 캐주얼화’는 바로 나이 들고 지친 자신들의 자화상이었으며 그것을 노래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을 솔직하게 노래하고 싶다는 ‘음악적 자기 선언’이었던 것이다. 예전 같으면 ‘패배주의’ 라거나 ‘소부르주아적 감상주의’라고 비판받았을 그들의 노래는 좀 더 자유롭게 개인의 영역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운동의 성장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30대 이상의 세대들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삶이 구호나 이론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의 말 못 할 고민에 유정고 밴드의 노래는 충분한 위로가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랜 음악활동을 통해 다져진 멤버들의 기본기는 음악적으로도 탄탄한 민중음악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들을만한 것으로 평가 받으며 동료와 후배 민중음악인들에게 민중가요의 또 다른 방식을 보여 주었다. 블루지한 포크적 감수성이 돋보였던 정윤경과 의외로 담백한 고백적 포크가 잘 어울렸던 유인혁의 조화는 팀의 색깔을 중층적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박우진의 간결한 베이스 터치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30대 후반의 민중가요 창작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선배급 음악인들이 여전히 무대에 서서 노래하며 자신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은 신선했다.

사실 유정고 밴드를 밴드라고 보기에는 보컬 부분이 약하고 팀 라인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지도 못 한 측면이 있긴 했지만 비판적이었던 노랫말과는 달리 그들의 열정은 보통이 아니었다. 유정고 밴드는 자체 연습실을

구축하고 기획자를 배치했으며 수시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그리고 그들은 콘서트를 할 때마다 새로운 곡들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기존의 곡들도 다르게 편곡해서 들려주었다.

희망보다 더 큰 열정으로

만약 이러한 작업이 계속되었다면 분명 민중가요가 더 다양한 깊이를 갖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정고 밴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한 내부의 사정으로 지난해 말 활동을 중단했고 유정고 밴드의 멤버들은 각자 자신들의 음악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유정고 밴드가 탄생했을 때 그들의 팬카페 이름이 <유정고 밴드 살리기> 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예견했던 것일까?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인 민중음악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음악을 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격려만큼이나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자본과 권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노래가 아니라서 민중가요가 아니라는 식의 교조적인 평가를 내렸던 이들은 자신들의 이메일조차 남기지 않고 인터넷의 익명 속에 숨어 상처를 주고 사라져버렸다. 과연 그들은 얼마나 ‘동지적 애정’을 가지고 유정고 밴드의 음악을 대했는지 모르겠다.

30대 이하의 민중가요 창작자가 거의 없고 새로운 한 팀이 아쉬운 마당에 좋은 음악팀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진보세력의 현재 문화적 역량인 것 같아 유정고 밴드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프다.



서정민갑

진보적 음악운동단체인 한국민족음악인협회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다. 공연기획, 음반제작, 음악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문화의 시대를 만들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다. 문화와 관련한 자유로운 글쓰기도 즐기고 있다.